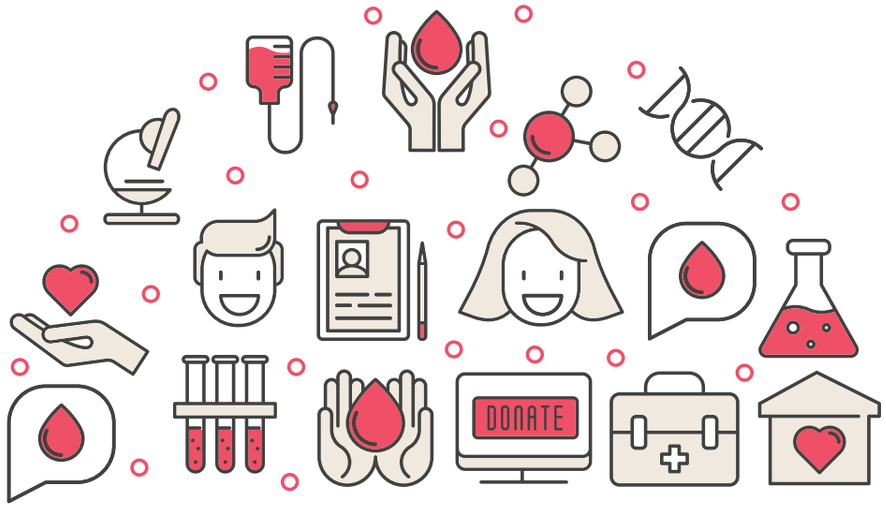
썬샤인 프렌즈와 함께 시작합니다.



- Good Morning Sunshine Project -

Good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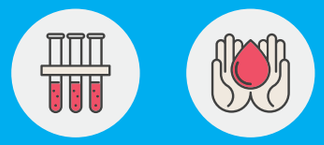
건강한 먹거리 제공

Good Think

캠프, 체육대회, 생일잔치 등 정서 지원

Good Dream

대학생 연계 1:1 학습지원 및 멘토링



소아암 아이들을 함께 응원해주실 햇살처럼 눈부시고 따듯한 마음의 Sunshine Friends가 필요합니다.
매월 정기 기부를 통해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 주세요.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www.hanbitlove.or.kr

굿모닝 썬샤인 프렌즈

당신은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 입니다

2024 vol.13



치료비 지원 안내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아암NGO 한빛

소아암NGO한빛 치료비지원사업 신청안내



소아암NGO한빛에서는 소아암치료를 돕기 위하여
치료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안내 및 신청은 위의 QR 코드를 확인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환아와 가족의
건강한 세상을 늘 응원합니다.



·후원문의 : T. 02-3142-0675 / E. hanbit_2004@naver.com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CMS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후원 후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 안내

개인정보변경

소아암NGO한빛에 1회 이상 기부(금전, 물품)를 했던 썬샤인프렌즈께서는 개인정보가 변경됐을시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소식지 발송 등을 진행할 시 잘못된 주소 및 개인정보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문자로 변경
02-3142-0675번으로 변경된 개인정보 문자로 발송

▩ 전화로 변경
02-3142-0675번으로 변경된 개인정보를 전화로 알림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신청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는 창천동과 연희동에 각 1개씩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의 이용을 원하시는 소아암 가족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신규신청
연세암병원 소아암코디네이터
(02-2227-4175)

▶

확인
코디네이터 이용 승인
(개별 유선 통지)

▶

입주
관리위원

소아암NGO 한빛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창천동 53-60)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E-MAIL : hanbit_2004@naver.com
http://www.hanbitlove.or.kr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

내가 기억하는 한빛

04 내가 기억하는 한빛 (정향숙 한빛사랑회 회장)
- "1999년, 우리의 첫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Good Morning Family Event

06 신년잔치-위로와 사랑, 행복이 함께 한 시간
08 운동회-웃음과 감동이 함께 한 시간
10 그림페스티벌-사랑과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우리들의 집
12 여름힐링캠프-공감과 위로, 따뜻한 마음이 함께 한 시간
14 (여름캠프 가족후기) 김은우가족-섬김을 통해 경험한 평범한 일상
16 (여름캠프 가족후기) 이진욱가족-6년만의 외출
18 인식개선캠페인-완치자와 함께 희망나누기
20 멘토멘티캠프-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2 궁동물놀이-즐거움과 쉼이 함께한 시간
24 송년잔치-행복한 겨울의 시간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26 두산베어스/종근당- 철웅키트, 화이팅을 나누다
28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테디베어
29 스위스의 깨끗함을 선물한 메르베르
30 권용식후원자-응원의 마음 아너스클럽이 되다
31 박수영후원자-아낌없이 나눠요
32 도런도런-달리는 요정 달리는 산타
34 연세미래지도자클럽-섬김의 리더십
35 박우람후원자-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36 천사유치원-소아암 친구를 위해 지킨 약속
38 한국오노약품-진심을 가득 담아 보낸 선물과 편지
39 엘가닉-행복할 권리를 위해 만든 제품
40 이싹회-끝이 없는 사랑
42 늘해랑프로젝트-굿즈로 전하는 희망과 웃음
44 한국환경기술사회 MOU-선한 나눔의 교류
46 학습지원사업-나만의 선생님을 만나다
47 청아장학재단-소아암 이후 학업의 열정을 잇다
48 예림디자인고-나의 재능을 나누었습니다

Good Morning My Story

50 의료진이야기(안영은간호사)
- 나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52 미술치료이야기(김지온가족)
- 온전한 아이의 편을 만났습니다

54 치료비지원 이야기(정다영가족)
- 이 치료의 끝에 활짝 웃을 수 있기를

Good Morning Hanbit

56 2024 한빛 NEWS
58 2024 후원 NEWS
62 2024 결산현황
63 2024 후원자 명단
64 2024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65 후원안내 및 모집
66 정기후원(CMS) 신청서
67 포토에세이
68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2024 Vol 13 | 2025년 2월 20일 발행 | **발행인** 유철주
편집인 송민정 | **발행처** 소아암NGO한빛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창천동 53-60)
TEL 02-3142-0675 | **FAX** 02-3142-0670
E-MAIL hanbit_2004@naver.com

홈페이지 | 블로그 | 해피빈 해피로그 | 카카오 채널

※ 표지설명 : 2024 제 4회 그림페스티벌 고등부 대상 수상작입니다.

1999년,
우리의 첫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멀리서만 바라봤던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제게도 다가왔는데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내 자식에게 찾아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긴 투병생활 끝에 결국 완쾌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저는 여전히 소아암, 백혈병 투병중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한빛사랑회라는 자조모임을 만들어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월 한빛사랑회의 임원단을 새로 꾸리면서 매달 소식지 발

행과 병실 방문, 생일잔치를 진행하며 실의에 빠져 있는 환자와 부모님을 만나 위로를 전해주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해 환자들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환자 가족을 보며 힘든 상황이었지만 후원을 받아 가족캠프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뜻깊은 캠프를 진행하며 가슴속에서부터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1999년을 시작으로 가족캠프의 의미와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저는 그 뒤로도 매년 여름마다 가족캠프를 진행했는데 그 가족캠프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한 해마다 지속되어 벌써 올해로 25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사랑회 회장으로서 이끌었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음을 알기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당시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때를 추억하니 눈물과 회한이 깃듭니다. 지금은 소아암NGO한빛에서 모든 후원과 지원, 행사들을 완벽하게 진행해 주고 계시니 그저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빛사랑회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남아 소아암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도 과거의 그때만큼 왕성히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닿는 한 열심히 저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한빛사랑회를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사랑회 회장

정향숙

위로와 사랑, 행복이 함께 한 시간

일시 : 2024.01.12.(금) 10:30~13:30
장소 : 더클래스청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60길 17-5)
참여인원 : 총121명(가족 111명,
소아암NGO한빛 등 스텝 10명)
프로그램 : 컵케이크 꾸미기, 마술쇼,
점심식사(뷔페), 행운권추첨,
선물이벤트 및 나눔



더클래스청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고의 런치를 진행 할 수 있게 후원 해주신 더클래스청담의 윤종수 대표님과 박선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재능기부로 함께 해주신 잘앤제니뜨(사진촬영), 역삼동 구스베이커리 노재경 대표님(컵케이크 꾸미기), 최동환 마술사님(마술쇼), 다양하고 풍성한 선물을 후원 해 주신 XOUL, 제주원렌트카, 서초 크로스핏 포레스트, 씨지앤 아이게임그래픽학원, 한국소아암재단, 더클래스청담 김윤지&김윤희 자매, 장덕희 작가, 한빛사랑회 김영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클래스청담과 함께 본 행사를 처음 기획하였을 때, 어떤 행사명이 좋을까 고민했던 때가 생각 납니다. 소아암 환자와 가족분들이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식사와 함께 최고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최고의 런치'가 올해 벌써 4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감을 모두 만족시켰던 더클래스청담의 점심식사는 행복감을 가득 안겨주었고 식사 이전에 진행한 컵케이크 꾸미기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며 마술쇼는 보는 것만이 아닌 참여와 체험을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한 오늘, 새롭게 시작된 2024년을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과 의미있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들의 2024년에는 기대하던 바를 모두 이루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 합니다.



최고의 런치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 역시 '최고의 런치'는 이름답게 최고였어요!(엄치척)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가족 모두가 행복했고 뜻깊은 시간 보냈습니다.
- 올 한해, 오늘 같은 즐거운 추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치료하며 힘내보겠습니다.
- 방학인데 컨디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외출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더불어 응원의 말씀 주시니 더욱 기운이 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게요!
- 소아암 가정들의 힐링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도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 듬뿍 받은 느낌 오래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함께 한 시간

일시 : 2024.05.15.(수) 10:30~15:30
장소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4층
대체육관
참여인원 : 총 134명(가족 97명, 소아암 NGO한빛 등 스텝 37명)
프로그램 : 게임, 점심식사, 행운권추첨 등

한빛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빛운동회가 보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사랑, (사)한국환경기술사회와 만남과 동행, 한국소아암재단,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정현민 어머님과 여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년 야외에서 진행했던 운동회를 올해는 실내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날이 꾸물거리더니 오후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운동회 날이면 늘 화창한 날씨였는데, 실내에서 진행한 올해 처음으로 비가 오다니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운동회를 끝까지 즐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운동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여러 게임들을 즐기며 많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빛 운동회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 많이 웃고,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고, 모두 함께 주인공이 된, 가정의 달에 딱 맞는 뜻깊은 시간!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 아이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몸과 마음 꽉 채워서 왔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처음 참가해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는 한빛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 다 참여해 보고 싶어요.
- 기대감을 갖고 참여했던 운동회에 참여도 잘하고 씩씩하게 해내는 아이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우리팀 이겨라" "괜찮아!"를 연신 외치는 모습에 참여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이가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운동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해주는 걸 들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 행사 내용 하나하나 감동이었어요!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덕분에 가족 모두 행복했습니다.
- 늘 믿고 가는 한빛운동회였습니다. 큰 사랑과 배려속에 많이 웃고 많이 참여해서 가족모두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과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우리들의 집

주제 : 집
접수기간 : 2024.03.25~04.30
접수 작품 수 : 총23점
수상자 발표 : 24.05.31

그림페스티벌
수상자 발표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나 혼자 또는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입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청소년암을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한빛사랑하우스(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하우스는 2004년부터 환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집' 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빛하우스가 올해로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 해 그림페스티벌의 주제는 집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집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그림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작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불어 모든 작품을 성심성의껏 심사 해주신 19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송은서 작가]
안녕하세요!!
소아암NGO한빛에서 열린 제4회 그림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에서 대상을 받은 송은서 입니다.
먼저,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그림 페스티벌을 열어주신 소아암NGO한빛과 한빛사랑회, 연세암병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이라는 주제를 보고는 바로 떠오른 모습은 집에서 평온하게 조용한 방에 누워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대상까지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많은 그림행사가 열리면 좋겠고 모든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고통없이 편안한 자세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해집시다!!

[Ellie 작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웃음이 떠오릅니다. 모두들 웃음이 넘쳐나는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길 바랍니다.

[김수호 작가]
그림도 그리고 상도 받으니 신나요!
상품으로 엄마, 아빠 밥을 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김효정 작가]
처음 참가했는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뻐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참가하고 싶어요.

[박세연 작가]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소중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즐거웠어요. 상까지 받게 되어 더욱 기뻐요! 이 영광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눌게요.

[박하음 작가]
책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보물들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정말 좋았고 상장과 상품권 받았을 때는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유경아 작가]
그림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치료 받았던 시기가 꽤 많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건빵 속 별사탕처럼 작지만 소중했던 순간이 있어서 힘든 기억이 아닌 저의 소중한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치료 받는 친구들에게도 치료를 받았던 시기가 힘든 시기로만 기억되지 않길 바라면서 매년 그림 페스티벌을 통해 짧지만 추억여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주시는 소아암NGO한빛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유예선 작가]
항상 공모전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빛 공모전에 참여 할 때마다 제 추억과 열정에 빠지는것 같아 항상 힐링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림이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과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매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최준혁 작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혁 작가]
우수상이라니!! 상상도 못한 결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가득하고 행복한 집에서 잘 살아갈께요.

공감과 위로, 따뜻한 마음이 함께 한 시간

일시 : 2024.08.25.(일)~27.(화) / 2박3일
장소 : 아일랜드 리솜(충남 태안군 안변읍 꽃지해안로 204)
인원 : 총107명(소아암가족 70명, 21가족 / 스텝+가족37명)
내용 : 단합게임, 가족통합프로그램 (미술치료), 가족사진촬영, 연령별 프로그램(미취학&초등-비누만들기, 비치백꾸미기 등, 중고등&성인&완치자-퍼스널컬러, 부모님-의료진과의 대화), 물놀이(해변+스파), 장기자랑, 가족미션수행, 행운권 추첨 등
후원 : 신원의료재단



여름힐링캠프가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되는 시간의 미술활동과 연령별로 맞추어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며 서로가 공감해 주고 위로 해주고 때론 용기를 주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신나게 2박3일을 보내는 열기는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캠프는 바다와 수영장을 모두 이용 할 수 있는 곳으로 간 덕분에 오전에는 바다에서 모래놀이와 물놀이를,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신나 했습니다.
이번 여름힐링캠프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분들의 90% 이상이 캠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10%가 '다음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 모두가 2박 3일 동안 신나게 놀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번 캠프를 통해 경험하고 캠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한 감동을 서로가 나눌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름힐링캠프 참여가족의 소감 중에서

- 같은 아픔을 가진 가족끼리 함께 모여 잠시나마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공감을 나누며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따뜻했고 이번 캠프를 통해 세상에 한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서 어떤 여행보다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운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고 이 추억이 앞으로 아이가 세상에 나아갈 때 따뜻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꼭 완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캠프를 즐겨준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뜻깊은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신원의료재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섬김을 통해 경험한 평범한 일상

김은우 가족

8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3일간의 캠프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저희 가족은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은우의 이상이 발견되었고,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 비행기를 타고 은우와 한국에 와서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 가족은 모두 은우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치료와 완전 유지에 오기까지 저희 부부의 마음은 힘들어도 아닌 척 버티었고, 저희 가족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해서 멀리 나가지도 못했고, 수영장이나 목욕탕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은우가 치료 받던 1년의 기억이 힘듦과 아픔만 남을까 걱정을 하던 중 병원 선생님들과 같이 가는 캠프 소식을 듣고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선물과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보며 처음엔 어색해했던 은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색해하면서도 즐거워했던 가족 사진 촬영에서는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과 가족 미술 시간에



는 평범한 5살 아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찾아온 기분이 들어, 1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시간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만 만났던 선생님들께서도 은우와 같이 이야기해주시고 같이 장난쳐주시면서, 막힌 담이 느껴지던 감정의 벽도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전날 아이와 물놀이 기구를 챙기는 데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입혔던 수영복을 벗기 싫다고 떼쓰던 저희 은우는 캠프 기간 동안 제일 즐거워하던 것이 물놀이였는데, 바다에 들어가서는 도무지 나오지 않을 정도였고, 모래성을 만들고 뿌듯해하며, 조개를 줍고 수영장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던 은우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더운 날씨에서도 혹시나 있을 아이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의약품을 준비하시고 지켜보시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끼니 신경 써 주신 식사와 아이들에게 최대한 맞춰주신 일정을 보며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생각하며 정말 감사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었고 소아암 환자의 부모로서 느끼는 걱정과 아픔을 같이 나누며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캠프의 압권은 써니킴 선생님의 데뷔 무대로 정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가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준비되고 열정적인 진행 속에 같이 참여한 모두는 아픈 치료의 시간은 잊고 다 같이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기자랑을 하는 아이들에 넘치는 끼와 체력에도 놀랐는데, 그 모습처럼 이제는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만이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니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던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에 저희는 그 평범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살아볼 만하며, 대가 없이 사랑을 전파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저희 가족도 그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치료로 도와주시고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지칠실텐데도 인간적으로 같이 고민해주신 많은 의료진 선생님들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셨음에도 다른 아이들을 사랑으로 헌신해주신 기린아 자원봉사자님들, 소아암NGO한빛에 진심으로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6년만의 외출

이진욱 가족





저희 집에는 개봉하지 않은 캠프용 텐트가 6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구입 후 코로나가 터지고 이젠 여유롭게 갈 만하던 시기에 성장치료 중 우연히 발견한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은 꿈에서도 생각 못 한 일이었고, 그 뒤로 1년 6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하면서 가족 여행은 또 한 번 우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행을 가고 또 학교생활이라는 걸 하는 동안 진욱이는 병원과 집이 전부인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갖게 되었지요.

친절한 교수님께서는 부모보다도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입원할 때마다 가슴에 꽂는 케모 바늘이나 매일 아침에 나가는 혈액 채취 때에도 아이들에게 "미안해", "많이 아팠지?", "거의 다 됐어"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모습에 이 세상 천사들은 다 이곳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나 모를 감염 때문에 갈 곳도 놀 곳도 늘 정해져 있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매년 열리는 소아암NGO 한빛 캠프를 작년엔 입원 치료 기간이라 갈 수 없었는데 올해에는 참가하게 되며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도 너무 설레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라 꿈에도 생각 못 한 여행이 이곳에선 가능하다는 게 그것도 의료진까지 다 계시니 여기야말로 오성급 병원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째 날 미술치료를 접목한 가족 활동을 할 때 석고를 붙이면서 짜증 없이 열심히 붙이고 점점 굳어가는 석고에서 안 빠지는 손을 빼내면서 웃는 진욱이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의료진과의 대화에서는 나만의 고민이 아닌 다른 환아 가족들도 똑같이 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한결 마음이 놓였고, 다른 가족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또 다른 정보도 듣게 되었던 게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바다에 갔는데 11살인 진욱이가 6년 만에 들어가 보는 바다는 인생의 절반을 기다렸다 들어가 보는 바다였습니다.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가 먼저 들어가 놀고 있는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엄마 껌딱지인 진욱이가 혼자 천천히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연신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바닷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던 간호사 선생님들 오후 수영장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눈에서 떼지 않고 돌보느라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고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죄송하네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드디어 기다렸던 아이들의 장기자랑은 참가자 부모로써 더 긴장되고 심박수가 올라갔는데, 피아니스트 진욱이도 시인 준희도 또 아이돌을 꿈꾸는 다른 아이들까지 정말 대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힐링 캠프를 하면서 이곳 신촌 세브란스는 신기한 곳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치료하러 온 환자와 가족일 뿐인데 의료진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거지? 다른 병원들도 이런가? 쉼터에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진짜 가족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이라는 세상에 126병동의 작은 천사마을에 사는 우리는 의료진분들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더 없이 행복하게 완치라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6년 만의 외출인 2024년 여름 힐링 캠프를 모든 분의 노력과 관심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짧다는 진욱이의 말이 그만큼 재밌게 잘 놀았다는 증거겠지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2박 3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치자와 함께 희망나누기

일시 : 2024.09.07.(토)
장소 : 연세로 스타광장(서대문구 신촌로)
활동내용 : 희망메시지 작성, 소아암환자 작품으로 만든 굿즈 판매, 인생네컷 사진 촬영 등



QR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 잡고자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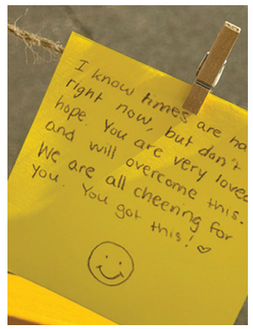


올해는 소아청소년암센터와 완치자 자조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식개선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완치자들의 인터뷰와 이를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은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과 옳지 않은 소아암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이들을 더 지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메시지를 보면서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삽입된 QR코드에 접속하여 영상을 확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감동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암 완치자 자조모임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하고 캠페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면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완치자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작성하여 응원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였고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작품으로 제작된 굿즈를 판매하였는데, 수익금은 소아암NGO한빛에 후원하여 현재 치료중인 소아암환자를 위해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현재 치료중인 많은 소아암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아암NGO한빛은 앞으로도 소아청소년암의 인식개선을 위해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암센터와 완치자 자조모임인 기린아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일시 : 2024.10.12(토)~13.(일) / 1박2일
장소 : 준179펜션(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인원 : 총33명(환자, 완치자, 형제자매, 의료진 등)
내용 : 게임, 작은 음악회, 마음나누기, 바베큐 파티, 자유시간, 행운권 추첨 등



보호자가 보내준 메시지

- 좋은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과 영상 속 아이들 너무 이쁘네요!
-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날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 했던 날,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아청소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형제자매, 완치자 자조모임인 기린아와 형제자매, 그리고 의료진들은 아름다운 곳에서 1박 2일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에서 모두가 게임을 즐기고 서로가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함께 많이 웃었습니다.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서 또래끼리 멘토와 함께 하는 자유의 시간은 청소년 시기의 우리 친구들에게 아마도 참으로 소중하고 너무 매력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잔디의 앵두전구 불빛 아래에서 우리들이 직접 연습하고 연주한 작은음악회 “우리들이 만들어낸 하모니”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참여자 모두가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 일상에 큰 활력과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 또 함께 하고 싶다’는 참여자분들의 마음처럼, 내년에도 좋은 기회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환자의 소감 중에서

- 게임하는 동안 서로 친해질 수 있었고 음악회를 준비하는 시간에 서로서로 하나씩 맞춰가면서 더더욱 친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합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실수해도 서로 탓하지 않고 즐겁게 연습해서 좋았습니다. 악기연주까지 하니 재미있었어요.
- 의료진, 환자, 형제자매, 완치자가 모두 모여 친근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이야기와 조언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신기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같이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신나서 진짜 그냥 모든게 좋았습니다.
- 환자로서 지루한 일상에 큰 활력이 되었고 완치자분들을 보며 나도 잘 이겨낼 수 있겠다는 용기와 희망이 공고해졌습니다.







즐거움과 쉼이 함께한 시간

일시 : 2024.10.12(토) 12:20~15:50
장소 : 궁동종합사회복지관(구로구 오리로)
인원 : 총37명(7가족-22명, 스텝15명)
내용 :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수영장
물놀이, 쉼까페 휴식타임,
퀴즈&선물 타임 등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02년 구로구청이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TBUC복지재단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건강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아암NGO한빛과 함께 소아청소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물놀이를, 보호자분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멋진 시간으로 준비하였고 "가을,(쉼)물놀이!!"에 참여한 가족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기회로 함께 해주신 티뷰크 사회복지재단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을,(쉼)물놀이 참여후기 중에서

- 아이가 너무 잘놀고 동생도 잘놀아서 좋았습니다. 간식도 세심하게 챙겨주신게 느껴져서 편히 놀다가 왔어요. 한빛에서 하는 행사는 항상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옵니다.
- 아이가 아프고 처음으로 가본 수영장이였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물놀이 하겠다고 장비랑 옷이랑 다챙겨서 갔는데 막상 물을 보더니 머뭇머뭇하며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었는데 점점 적응해서 신나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엄마인 저도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나중엔 수영선생님께 물총도 쏘고 어려운 도넛링 건너기도 도전했다가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했지만,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선생님들께서 밝은 얼굴로 계속 놀아주시고 아이들 안전도 확인해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 올 여름, 치료 때문에 물놀이는 생각도 못했는데 소아암NGO한빛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준비해주신 프로그램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2시간 정도의 물놀이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는데, 두손 무겁게 선물이며 간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네요. 늘 넘치는 준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행복한 겨울의 시간

일시 : 2024.12.18(수) 13:20~16:00
장소 :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
인원 : 약 150여명
내용 : 포토존, 그림전시, 소원카드 작성, 공연관람, 선물나눔 등





연세암병원과 함께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별한 시간, 2024 SUNSHINE FRIENDS 송년잔치가 5년만에 다시 서암강당의 불을 밝이며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로 온라인으로 전환 되었다가 다시 직접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세암병원에서 소아암치료중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 후원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송년잔치는 올해 약 150여명이나 함께 모여 행복한 겨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SBS 김윤상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함께 해주었고 주상욱, 차예련 배우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한국지회에서 후원 해준 테디베어 인형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며 포토타임도 가졌습니다.
그 밖에도 손인형극, 4중주 연주,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특히 소원카드 응원시간과 산타의 선물나눔, 의료진&완치자&소아암NGO한빛의 깜짝 공연은 환자와 가족에게 많은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후원처에서 후원을 해준 덕분에 더욱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즐거움과 감동이 함께 한 의미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년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겨울의 시간으로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빛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궁동종합사회복지관 : 아동의류
- 도련도련(소아암을 응원하는 러너들의 모임) : 간식꾸러미
- 메르베르 : 영유아용 로션
- 박준수 개인후원자 : 마들렌
- 보루네오가방 : 여행용캐리어
- 시어도어 루즈벨트 한국지회 : 테디베어인형
- 엘가닉(암환자와 건강관리 전문회사) : 켄가글
- 종근당건강&두산베어스 : 아임비타 철웅키트
- 친우엠테크 : 이노테이프
- 티티러브 : 머플러
- 한국기술사회 : 과자류와 팩우유
- 한국소아암재단 : 메디록스











철웅키트, 화이팅을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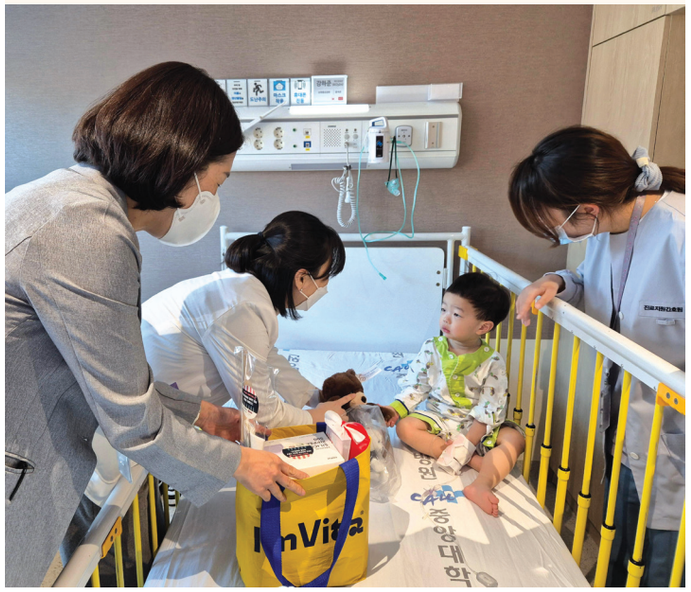
두산베어스, 종근당



대한민국 야구 명문구단 중 하나인 두산베어스에서 종근당과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홈런더비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홈런더비 이벤트란 두산베어스의 선수들이 시즌 중에 힘차게 쏘아올린 홈런이 묵직한 사랑이 되어 홈런의 개수만큼 기금을 적립하였는데 이 기금을 종근당에서 함께 후원해주었고, 소아암 아이들을 응원하는 입원키트로 만들어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구시즌이 끝난 잠실야구장의 푸르른 잔디밭 위에서 종근당, 두산베어스, 해피빈재단 그리고 소아암NGO한빛이 함께 모여 1500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철웅키트로 이름지은 이번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키트의 구성품을 고민하고 긴 시간 논의 후 고심 끝에 물품 구입을 끝낸 뒤 키트의 구성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웅키트를 담을 상큼한 리유저블백은 종근당







에서 후원해주었는데, 그 속에 구입한 물품들을 채우자 속이 꽉 찬 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철웅키트는 총 300개를 만들어서 신촌 세브란스 연세암병원과 중앙대병원에서 투병중인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기다리는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소아암 아이들에게는 연말도 새해도 병원에서 보내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웅키트가 아이들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철웅키트에는 정말 많은 이들의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응원과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종근당의 응원과 해피빈의 마음 그리고 소아암가족들의 곁에서 힘이 되고자 하는 소아암NGO한빛의 응원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부디 우리의 철웅키트가 소아암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테디베어

시어도어 루스벨트 한국지부 '테디베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물으면 바로 테디베어 인형일 것 입니다.
테디베어 인형은 미국에서 탄생하였는데 미국에서는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의료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기증되는 역할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자 1920년에 설립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재단(TRA)'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1986년부터 매년 8만개 이상의 테디베어 인형을 기증하는 '테디베어포키즈'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에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한국지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며 많은 어린이들에게 테디베어 인형을 통한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해피빈재단을 통해 세브란스병원과도 인연이 닿아 테디베어 인형과 테디베어 열쇠고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테디베어 인형은 현재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와 송년잔치에 참석한 환자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전해져서 소아암가족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한국지회 권순우 지회장께서는 이번 나눔을 통해 병실에서 연말과 새해를 보내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테디베어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소아암 아이들의 완치를 늘 응원한다는 격려의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테디베어인형이 전해준 값진 응원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깨끗함을 선물한 메르베르

메르베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잔치에는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에는 메르베르에서 로션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메르베르는 깨끗한 나라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100% 스위스 빙하수와 알프스 북부의 자연 여과된 깨끗한 물로 만든 영유아 전용케어회사입니다.
12월 연말을 맞아 송년잔치가 진행되는 날 메르베르는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선물하고 싶어 에센스 로션 24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후원은 테디베어 인형을 후원해준 권순우 지회장께서 의미있는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자 메르베르 회사를 직접 연결해 주어 소아암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송년잔치가 진행되는 행사장에 와서 직접 소아암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선물해준 메르베르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마음, 아너스클럽이 되다

권용식후원자(착한푸드 대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착한푸드를 아시나요?
넘치는 열정으로 사업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권용식대표님은 넘치는 열정을 선한 나눔의 현장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들렸던 세브란스병원에서 작은 몸으로 환자복을 입고 링겔을 꽂으며 항암치료를 다니는 아이들을 본 뒤 이 아이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세명의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대표님께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치료비지원 후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대표님의 철칙과 착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이 느껴지는 착한푸드의 대표님께서는 평소에도 나눔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진 소아암환자를 위한 후원이 누적후원금 1억원을 넘게 되어 후원자분들의 명예의전당인 아너스클럽의 회원으로 등극이 되셨습니다.
오랜기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소아암 환자를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용식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커다란 마음이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투철한 책임감으로 후원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의 아너스회원으로 소아암환자를 후원해 주신 착한푸드의 권용식 대표님과 진은정 사모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나눠요



박수영후원자(㈜브레인컨설팅 대표)





어느 날 사무실로 커다란 박스가 여러개 도착을 했습니다. 소아암환자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브레인컨설팅의 박수영대표님께서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히말라얀터치 크로스백/백팩, 대나무 칫솔, 스마트톡, 문구류, 다이어리, 샤워타올,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는 물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 소아암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물품 전부를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갑자기 풍성한 선물을 받은 한빛에서도 어떻게 나누어야 값지고 의미있는 나눔이 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쁜스티커를 만들어서 쇼핑백에 담은 뒤 병실과 한빛사랑하우스에 있는 소아암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을에 진행된 멘토멘티캠프 등 행사가 진행될 때에도 참석한 소아암가족분들께 나누어 드리며 귀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박수영후원자님을 떠오르면 늘 따스하고 인자한 미소가 함께 떠오릅니다. 미소와 함께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늘 감사드리며, 아낌없이 나누는 후원자님의 후원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도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한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리는 요정! 달리는 산타!

도런도런

소아암NGO한빛에는 어린이날이면 찾아오는 선물요정과 크리스마스면 찾아오는 산타가 있습니다.
'도런도런'은 2023년부터 소아암NGO한빛과 인연이 되어 연세암병원에서 치료 중인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위해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런도런은 러닝(Run)을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기부(Donation)로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는 단체명인데요, 김수빈, 문혜지님이 주축이 되어 많은 러너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자 두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을 생각하는 그 진심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선물꾸러미에 들어갈 모든 아이템을 직접 구입하고 하나하나 포장하며 준비하는 그 정성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러한 기분에 동참하며 열심히 뛰어주시는 러너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주셨는데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진행하는 송년잔치 때 깜짝 이벤트로 김수빈 후원자님께서 직접 산타로 등장하여 완치자 기린아분들과 함께 직접 선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서암강당에서 송년잔치를 즐기던 환자들에게 산타가 등장하여 선물까지 나누어주다니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소원을 적은 소원카드를 문혜지님과 함께 읽어주며 아이들과 소통하는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멋진 시간은 소아청소년암 환자를 응원하는 진심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걸 해주면 좋아할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는 김수빈, 문혜지 후원자님과 기부런에 동참 해주시는 러닝크루 러너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도런도런의 활동을 소아암NGO한빛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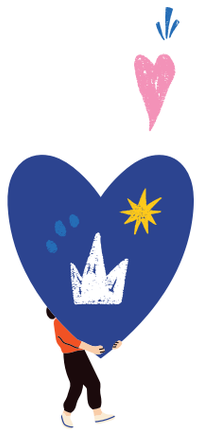


섬김의 리더십

연세미래지도자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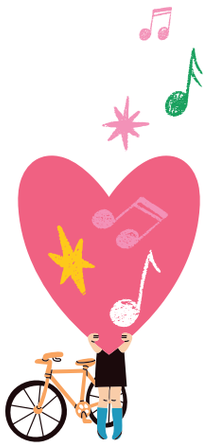


YFLC(연세미래지도자클럽)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운영하는 모임으로, 동문간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상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4년 12월 YFLC 송년모임에서 회원들은 함께 뜻을 모아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후원금은 소아암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 머무는 한빛사랑하우스를 지원하는데에 사용 될 예정이며, 가족들이 소아암치료 중 안심하고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쉼터를 지켜주어 소아암환자의 치료를 돕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기꺼이 실천하는 연세미래지도자클럽의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박우람(우람보컬스튜디오 대표)



한빛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합정동에 위치한 우람보컬스튜디오의 박우람대표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평소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서 생활하였던 후원자께서는 매년 겨울마다 기부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 소아암환자를 위한 후원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암 NGO한빛을 통해 일년 동안 소아암 아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수업 중 원데이클래스의 수업료 전액을 모아 12월 겨울에 다시 한번 후원해 주셨습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박우람대표님의 마음 속 따스함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모습에 절로 아름다운 미소가 따라 그려졌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박우람 후원자님의 목소리가 세상속에서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도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소아암 친구를 위해 지킨 약속

천사유치원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천사유치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올해에도 나눔천사가 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과 후원을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천사유치원의 후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금을 모으기 위해 부모님과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용돈을 받게 되는데 그 용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소아암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요"
"신발장, 책상 스스로 정리하기"
"깍두기 2개씩 먹기"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기"







아이들마다 '나눔 실천을 위한 나의 약속'을 무엇을 정하였나 보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러면서도 야무진 결의가 느껴지는 약속들이 보여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눔의 의미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행복을 알게 된 천사유치원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면서 전하게 될 선한 영향력들이 벌써 눈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귀한 나눔이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빛에서도 더 열정으로 소아암 친구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유치원 후원자 명단

강현우 / 고도준 / 구나율 / 구슬우 / 권재이 / 김가은 / 김강우 / 김건우 / 김다미 / 김도하 / 김동윤 / 김승진 / 김안나 / 김우성 / 김우연 / 김유진 / 김이현 / 김이현 / 김재미 / 김주은 / 김준연 / 김지유 / 김지율 / 김태연 / 김혜진 / 김효주 / 김희재 / 문서현 / 문소율 / 문하준 / 민솔하 / 박다인 / 박도건 / 박사랑 / 박서아 / 박선우 / 박시준 / 박유나 / 박주언 / 박현빈 / 박효은 / 배서준 / 배수진 / 배주언 / 백지우 / 서재민 / 서정연 / 송유리 / 송유진 / 송하율 / 신도영 / 안효빈 / 양현우 / 엄태윤 / 오서진 / 오준기 / 유성은 / 유세나 / 윤소희 / 윤여준 / 윤종석 / 윤찬빈 / 이규원 / 이도겸 / 이도현(1) / 이도현(2) / 이세희 / 이수아 / 이시안 / 이아린 / 이유주 / 이유주 / 이윤재 / 이지호 / 이하준 / 임도희 / 임라운 / 전여름 / 정라온 / 정소율 / 정시온 / 정여준 / 조현호 / 조환유 / 주시아 / 주하윤 / 채하 / 최아영 / 최연서 / 최유진 / 최하늘 / 탁민준 / 한서진 / 한서희 / 한우진 / 한지훈 / 한희재 / 홍세린 / 홍준화 / 황서원 / 황주하





천사유치원 교직원 후원자 명단

구윤지 / 김지은 / 김수진 / 김희경 / 박소정 / 박명지 / 박슬기 / 유태림 / 이소희 / 여수빈 / 장태옥 / 조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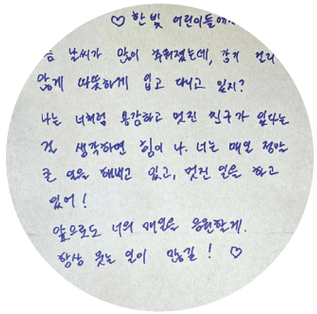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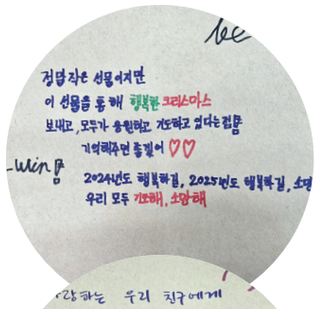
진심을 가득 담아 보낸 선물과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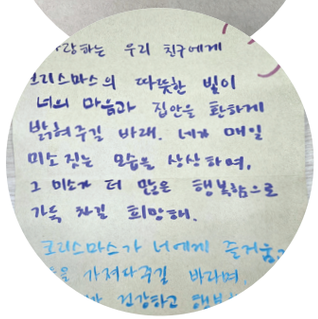
한국오노약품공업 주식회사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와의 인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에 있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위해 연락을 주셔서 처음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위해 어떤 후원을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고 같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지게 되었고, 산타할아버지 복장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오노노약품의 후원은 늘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임직원들이 조별로 나뉘어 소아암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고민하고 발로 뛰며 직접 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암가족들이 머무는 쉼터인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따로 전달해 주어 오래되어 자주 고장이 났던 김치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꾸고, 냄비, 후라이팬, 세제 등 꼭 필요한 물품들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선물은 한국오노약품의 임직원 분들과 가족분들이 소아암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든 손편지와 카드였습니다. 진심을 가득 담은 편지는 산타주머니에 가득 채워 보내준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선물안에 넣어 소아암친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을 환한 미소와 함께 한아름 전해준 한국오노약품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할 권리를 위해 만든 제품

주식회사 엘가닉



한빛하우스에는 매달 한 달에 한번씩 특별한 선물이 도착합니다. 바로 엘가닉에서 보내주는 다양한 캔케어 제품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한다는 엘가닉의 기본정신 속에는 암환자의 관리와 건강을 전문적으로 케어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한빛사랑하우스에서 머무는 소아암환자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매달 다른 품목으로 한 박스씩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12월에 진행된 송년잔치에도 캔가글 제품 150개를 후원해 주어 송년잔치에 참석한 소아암환자에게 특별 선물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엘가닉의 꾸준한 후원은 2025년에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으로 한빛사랑하우스 곳곳에도 비치하여 하우스를 방문하는 모든 소아암 가족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암환자를 위한 전문 제품을 만드는 엘가닉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응원의 마음이 가득 담긴 엘가닉의 제품들도 소아암환자를 위해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싹회의 끝이 없는 사랑

이싹회

이싹회와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화여자부속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이싹회는 내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다보니 모든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예쁘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게 된 어머님들께서 세상 속의 아이들을 위해 힘을 모아보자고 시작된 것이 벌써 49년이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새 부턴가 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아이들을 돕는 일에 후원을 하였는데, 2016년 그 해에는 소아암 아이들을 돕기로 결정되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중인 소아암아이들을 돕고자 소아암NGO한빛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한 인연이 올해까지도 이어져 벌써 9년째 이싹회의 후원으로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싹회 회원분들을 만나 감사인사를 드리면 오히려 이싹회 회원분들께서 우리의 후원으로 치료를 받고 앞으로 한발자국씩 나아가는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어 큰







감사를 느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진심으로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로 손을 잡아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이싹회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바자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시간 정말 많은 회원들께서 정성으로 준비한 바자회가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올해에도 81,629,580원을 소아암환아의 치료비를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싹회와 동행하며 소아암환자와 가족분들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 정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싹회의 큰 열정과 환한 미소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치료비가 필요한 많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즈로 전하는 희망과 웃음

늘해랑 프로젝트



‘늘해랑’은 소아암 환자들의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어, 두려움을 떨쳐내고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늘해랑 프로젝트는 2020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소아암 환자들이 그린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현재 치료중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후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진행된 늘해랑 프로젝트는 네이버에서 모금 및 후원을 진행하는 해피빈의 펀딩을 통해 판매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늘해랑 프로젝트의 활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여섯 명의 소아암작가님들이 함께하여, 웃음과 함께 어려움을 디딜 수 있는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굿즈에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올해의 작가님들은 독특한 이름의 상상 속 캐릭터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종이를 통해, 혹은 직접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설명해준 그림 속 친구들은 각자 자신만의 취향과 성격을 가져, 작가님들의 소망과 꿈을 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여섯명의 소아암 작가님들이 나의 세계에 타인을 초대하여 희망과 웃음을 선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과 자기긍정감을 느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에도 성황리에 진행된 해피빈 펀딩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환자를 위해 후원해 주셨는데요, 오랜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이번 활동의 후원금을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이 머무는 한빛사랑하우스의 운영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MOU 체결식

선한 나눔의 교류

1963년 기술사법이 제정된 후 시행된 기술사 제도가 올해로 63주년이 되었는데, (사)한국환경기술사회는 1983년 1월 15일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국토개발기술사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7년 현재의 명칭인 (사)한국환경기술사회로 명칭을 변경한 뒤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환경 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평가와 환경 기술 및 정책 건의 및 환경기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입니다.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순명 회장은 한국기술사회를 통해 맺게 된 인연이 (사)한국환경기술사회까지





이어져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홍순명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소속된 기술사들과 함께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미있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측은 상호 협력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아암 환자들에게 문화행사와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측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더욱 선한 나눔의 교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히든젬스 동아리
학습지원사업

나만의 선생님을 만나다



올해에는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SK LOOKIE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히든젬스 동아리 소속의 3명의 학생들과 인연이 닿아 특별사업으로 소아암을 치료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학습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교 생활만으로도 바쁜 학생들이었지만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게 되었고, 어떤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의 기회를 주어야 할지 공평함을 위해 공개 접수를 진행하여 선정된 4명의 환자에게 원하는 과목을 6개월간 일대일로 지도하였습니다.
소아암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동안 잠시 멈출 수 밖에 없었던 학업으로 인해 큰 고민을 안고 있었던 소아청소년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해준 3명의 재능기부 봉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학생 소감]

"작년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2년간 치료를 받느라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해서 기초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체력도 되지 않고 인강으로는 질의하며 알아나갈 수 없기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나만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청아장학재단
장학금지원사업

소아암 이후 학업의 열정을 잇다

청아장학재단은 신원의료재단에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길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소아암환자를 위해 꾸준히 후원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소아암 투병중 혹은 투병 이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3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소아암 이후의 학업을 지지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아암 투병기간동안 소아암환자들은 치료에 전념하느라 학습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학교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다시한번 치열하게 학업의 열정을 불태울 것입니다.
소아암 그 이후의 삶을 위해 귀한 후원을 보내주신 청아장학재단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모든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 그 이후의 삶도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
굿즈 전달식

나의 재능을 나누었습니다

재능기부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부'라고 하면 흔히 현금 또는 물품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기부'는 나의 재능을 대가 없이 나누는 형태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재능기부를 예림디자인고등학교에서 2022년부터 소아암NGO한빛을 위해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에서 매년 진행하는 그림페스티벌에 응모된 작품들이 단순한 그림만이 아닌 굿즈로 재탄생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의 협업 덕분입니다.
올해는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위드디자인반(동아리활동)을 담당해주시는 육혜란 부장님과 콘텐츠디자인과 10명의 학생이 함께 하였고 어김없이 멋진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의 그림원본을 디지털화하고 굿즈에 맞추어 리디자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디자인을 서로 공유하고 여러차례 피드백을 나누며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마그넷2종, 틴케이스2종, 키링2종, 노트2종, 하드커버 점착메모지2종, 볼펜1종, 북마커3종, 엽서 23종 이라는 많은 종류의 굿즈를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은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었고 그 과정 속에 열정이 더해져 멋진 굿즈가 완성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림디자인고등학교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자를 위해 후원금으로 무릎담요를 제작해준 덕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릎담요는 그림페스티벌 대상 수상작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그림페스티벌에 응모된 모든 작품으로 달력 형태의 컬러링북을 만들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나의 재능을 나누는 그 마음과 시간들에 다시한번 감사함을 느끼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학생들 역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음에, 그리고 그 재능으로 인해 누군가는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나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암을 치료중인 환자들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마음에 힘입어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힘을 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굿즈작업 참여 재능기부 학생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3학년
김소윤, 김이예은, 신채민, 오서율, 이은성, 이은재, 임수진, 하시현, 한지원, 한효린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안영은 간호사

면 아픔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더 진한 사랑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힘든 하루 속에서도 웃음을 찾아내는 아이들과 가족들,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는 동료 의료진들까지.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하루도, 함께였기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병동 안에서 사람이 가진 회복의 힘과, 함께일 때 생기는 에너지에 대해 믿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혈액종양과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안영은 간호사입니다. 처음 소아혈액종양 병동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작은 어려웠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혈압을 재주겠다며 혈압계를 만지던 고사리 같은 손과 땀 흘리며 일하는 저에게 보내주던 해사한 미소, 고된 치료 과정 중에서도 병동 복도를 뛰어다니는 작지만, 힘찬 뜀박질 소리가 저를 더 빨리 걷게 해 주었고, 힘을 불어 넣어주었으며,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흔히 소아혈액종양병동을 떠올리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병동의 공기조차 무거운 날에도 서로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말 한 마디, 눈빛 하나가 지금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이는 것으로,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지켜보는 일, 가족의 눈물을 마주하는 일은 매 순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 강인한 아이들과 보호자님들과 함께였기에 저는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소아혈액종양병동에서의 하루하루는 저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병동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현재 외래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외래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간 아이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일 때 병동에서 만났던 아이가 자라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서 한몫을 해 내고 있는 것을 보면 힘들었던 시간을 지켜본 의료진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버겁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같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이 시간을 견디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온전한 아이의 편을 만났습니다

김지온양 어머니





저희 가정은 7살 딸과 5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뛰어놀기 좋아하던 아들인 둘째 아이가 급성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그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엄마인 저는 휴직을 하고 아이의 항암치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항암치료로 고생을 하는 동안, 집에 남은 첫째 딸 아이도 7살의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생의 발병, 엄마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와 동생의 입원생활이 계속 이어지며 가장 손길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혼자 꿋꿋이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항암치료로는 완전관해에 이르지 않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었고, 유전자 일치율 100%을 보인 첫째가 동생의 공여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유전자 결과 100% 일치한다는 소식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두 아이를 모두 수술대에 올려야한다는 생각에 사무치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공여했고, 현재 둘째 아이는 이식 후 합병증을 치료하며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시간동안 온 가족이 아픈 둘째의 치료에 관심을 쏟은 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형제인 첫째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첫째에게서 불안한 정서가 행동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환아의 형제로서 첫째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아픈 둘째아이에 이어 첫째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는 엄마로서의 커다란 죄책감은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소아암NGO한빛에서 첫째 아이를 위한 미술치료를 권해주셨습니다. 환아의 가족까지 염려해 주신 배려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미술 치료 선생님께서는 '온전한 아이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회기를 거듭하면서 자신에게 진심으로 귀기울여주시는 선생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꺼내지 못한 마음 속 두려움, 동생에게 이식을 해야했을 때의 솔직한 심정 등을 꺼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엄마~미술놀이 너무 재밌어요~스트레스가 확 풀려요~"하며 수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오롯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대변해주셔서 제가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는 전보다 마음이 편안해보입니다. 걱정했던 불안행동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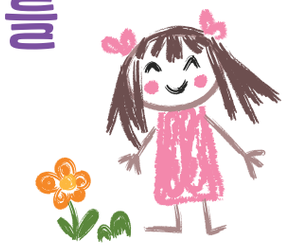
둘째 아이의 완치까지는 많은 걸음이 남아있지만, 환아의 형제로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첫째의 마음도 들여다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걸음에 소아암NGO한빛의 미술 치료가 큰 도움과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
미술놀이 너무 재밌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이 치료의 끝에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정다영환자 어머님



한빛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저희 가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치료에 좋은 결과로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다영이가 이 치료의 끝에
활짝 웃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살이 된 작고 귀여운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여자아이 정다영의 엄마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두 번째 생일을 맞은 아이에게 갑자기 안구가 튀어나오는 증상이 보여 급히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청천벽력 같은 뇌종양이란 소식을 듣고 서울의 큰병원에 가서 당장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들고 새벽 3시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달여 동안 많은 검사와 고열로 고생하던 중 급성 골수도 구성 백혈병이라는 또 하나의 병명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곧장 어린이 병원에서 암병원으로 전과하여 골수검사와 중심정맥관 삽입 수술을 진행하여 바로 항암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영이는 6번의 항암을 하고 2022년 2월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이후 다행히 1년간 잘 지냈는데 갑자기 2023년 2월 24일에 다시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발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수치가 너무 안 좋아 골수검사와 항암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첫 항암부터 다영이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 4번의 항암이 끝나고 두 번째 이식수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는 칸 숙주로 고생하다 눈 숙주, 구강 숙주 등 많은 후유증으로 이미 잃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정말 신은 있으신 건지 야속하게도 2024년 9월 아이가 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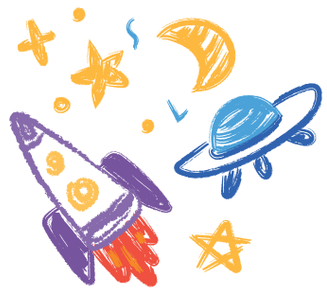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의지가 강하고 씩씩하게 잘 견뎌내어 주는 다영이가 있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남 진주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우리 가족의 생활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희망을 안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빛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저희 가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치료에 좋은 결과로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다영이가 이 치료의 끝에 활짝 웃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 한빛 NEWS



1.제4회 소아청소년암가족 신년잔치 최고의 런치

1/12(금)에 더클래스청담에서 후원한 제4회 최고의 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21명이 모여 컵케이크 꾸미기, 마술쇼, 행운권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 해의 첫 시작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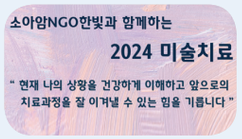
2. 기부자월 아너스클럽 위촉식

1/25(목)에는 소아암NGO한빛의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명예의전당 개소식을 기념하고 아너스클럽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제4회 그림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 개최

3/25(월)~4/30(화)에 걸쳐 제4회 그림페스티벌의 작품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집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작품을 접수해 주었습니다.



4. 미술치료 지원사업 시작

2024년 4월부터 소아암환자 및 형제자매, 부모님의 정서지원을 위한 미술치료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미술치료를 희망하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SK LOOKIE 연세대학교 지부 소속 히든젬스 팀 학습지원 사업진행

SK LOOKIE 연세대학교 지부 소속 히든젬스 팀원 3명이 소아암환자의 학습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4명 환자에게 6개월간 개인별 학업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6. 2024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

5/15(토)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4층 대체육관에서 소아암가족 및 스텝 134명이 모여 게임, 점심식사, 행운권추첨, 에어바운스 놀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암센터

7. 집중상담을 통한 치료비지원 지원 실시

5월~7월까지 연세암병원 4층 상담실에서 병원의 배려 덕분에 매달 일주일씩 집중상담을 통해 치료비지원을 위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8. 늘해랑 해피빈 펀딩 진행

6/3(월)~7/12(금)까지 해피빈 펀딩을 통해 늘해랑에서 소아암환자 작가의 그림을 토대로 제작된 총 6종의 굿즈를 판매하여 총 4,355,000원의 판매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9. 신원의료재단 제 25회 2024 소아암가족 여름캠프

8/25(일)~8/27(화)에는 신원의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여름캠프가 2박 3일동안 안면도에 있는 아일랜드 리솜 리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아암가족 21가족과 스텝 총 107명이 참석한 이번행사는 조별게임, 물놀이, 의료진과의 대화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 2024 소아암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9/7(토)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완치자 및 의료진이 함께 소아암의 편견을 없애고자 거리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영상 상영, 인생네컷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1. 한국환경기술사회 MOU 체결

9/23(월)에 연세암병원 2층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기술사회와의 MOU 체결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사의 전문봉사, 물품후원 등을 약속하며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12. 소아청소년암환자 멘토멘티 MT

10/12(토)~10/13(일) 1박 2일에 걸쳐 준179(경기도 양평 소재)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형제자매, 의료진, 완치자 등 33명이 모여 작은음악회, 이야기나눔 등을 통해 긍정적인 투병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13. 궁동복지관과 함께하는 ‘가을아 놀자’

10/12(토)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 수영강사님의 진행하에 소아암환자들의 즐거운 물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14. 두산베어스, 종근당 후원금 전달식 및 입원키트 배분

11/11(수)에는 잠실야구장내 그라운드 위에서 두산베어스, 종근당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해피빈재단의 추천으로 연계된 이번 후원으로 300개의 입원키트가 제작되어 신촌 세브란스 및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투병중인 소아암환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5. 2024 송년잔치 진행

12/18(수)에는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손인형극, 4중주 연주회, 미술공연, 행운권추첨 등 푸짐한 행사와 풍성한 나눔을 통해 송년잔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6.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재능기부 제작 및 후원굿즈 전달식

12/27(금)에는 굿즈 제작을 위해 재능기부로 캐릭터화 그림을 완성해준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의 굿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7종으로 제작된 굿즈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완성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아장학재단

17. 청아장학재단 소아암환자 장학금 지원

12/31(화)에 소아암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았던 학생 중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3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앞으로의 지속적인 학업의 정진을 위해 격려하였습니다.

2024 후원 NEWS

1. 궁동복지관 수제인형 50개 후원물품 전달

1/10(수)에는 어린이를 향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87세 어르신께서 한 땀한땀 정성스레 만들어준 수제인형 50개를 궁동복지관을 통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2. 연세의료원 2023 교직원 성탄축하예배 기부금 전달식

1/24(수)에 2023 교직원 성탄축하예배의 성탄헌금 1,500,000원을 소아청소년암 환자를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3.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 생활용품 후원

1/25(목)과 9/3(화)에 명절을 맞아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에서는 한빛사랑하우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을 위해 유리용기세트, 스팸, 후라이팬 등 생활용품 일체를 후원해주셨습니다.



4. 한국환경기술사회, 만남과동행 물품후원 전달

2024년에 소아암가족을 위해 1/25(목) 과자 18박스, 4/19(금) 과자 45박스, 5/12(일)에 마스크 1500장과 생수 500개, 12/6(금)에 캐리어 12개, 12/16(월)에는 캐리어 12개 및 과자 7박스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5. 대흥설비주식회사 목우촌 설날,추석 선물세트 전달

대흥설비주식회사에서는 올해에도 명절을 맞아 소아암가족을 위해 2/1(목)에 한상가득 선물세트 50박스와 9/6(금)에 한우갈비탕 선물세트 50박스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6. 본아이에프(주) 후원금 및 본죽, 본아이 뻥튀기 후원

3/8(금)에 본죽 상품권 구입을 위한 지정후원금 3,000,000원을 후원해 주어 상품권 구입 후 필요한 소아암가족에게 나누어 드렸으며, 3/15(금)에는 영유아를 위한 키즈죽 400개와 7/5(금)에는 영유아를 위한 본아기 뻥튀기 5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7. 한국소아암재단 생활용품 및 장난감 등 물품후원 전달

매년마다 소아암환자를 위해 여러 차례 물품후원을 나눠주는 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벌써 몇 년째 매월 10kg의 쌀을 4포대씩 보내주고 있고, 생필품(휴지,키친타올 등) 및 살균제, 장난감 등 후원물품을 한빛사랑하우스에 보내주셨습니다.



8. 도런도런 어린이날 후원물품 전달식

5/1(목)에는 달리기를 사랑하는 러너들의 모임인 도런도런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암환자를 위해 선물꾸러미 60세트를 직접 포장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9. 메이크어위시 캔서코치 후원물품 전달

5/30(목)에 메이크어위시에서 소아암환자를 위한 캔서코치 6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10. ㈜에프앤씨 마스크 6000장 전달

6/26(수)에 ㈜에프앤씨에서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일반마스크 6000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1. 허유정 후원자 팝업스토어 후원금 전달

7/4(금)에 이싹회 회원인 허유정 후원자께서 고려도편 문양이 금박, 은박으로 찍힌 가방의 판매 기부팝업을 진행한 수익금 전액인 20,150,000원을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12. ㈜은하수미디어 문제천 대표 종이접기책 및 색종이 전달

7/4(목)에 이싹회 회원님 연계로 ㈜은하수미디어 문제천대표님께서 병실에서의 즐거움을 위해 종이접기책 60권과 색종이 60묶음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3. ㈜브레인컨설팅 박수영대표 생필품 등 후원물품 지원

7/17(수)에 대를 이어 소아암환자를 후원하고 있는 ㈜브레인컨설팅의 박수영 대표님께서 보냉백, 비누, 파우치 등 총 923점(후원금 환산금액 12,104,000원)의 후원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1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어린이병원봉사단 의료키트 전달식

8/8(목)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봉사단에서 병실과 하우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소아암환자를 위해 의료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의료키트 25개를 손수 만들어 전달해 주었습니다.



15. 이노테이프 저자극 의료용 실리콘 테이프 전달식

8/30(금)과 11/8(금) 두 차례에 걸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저자극 실리콘 테이프를 생산하는 이노테이프에서 소아암환자를 위해 이노테이프 15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16. 늘해랑프로젝트 해피빈펀딩 수익금 후원금 전달식

9/19(수)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늘해랑 프로젝트에서 6/3(월)~7/12(금)까지 해피빈을 통해 굿즈 펀딩판매를 진행한 뒤 판매대금 4,355,000원을 소아암환자를 위해 전액 후원해 주셨습니다.



17. 엘가닉 정기후원물품 약속 및 후원물품 전달식

9/26(목)에 한국소아암재단을 통해 연계된 암환자 전문 제품을 만드는 엘가닉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갖은 뒤 10월부터 매달 하우스로 다양한 엘가닉 제품이 담긴 후원물품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8. 이은경후원자 소아암가족을 위한 신사옥 건축기금마련 후원금 전달

10/6(일)에는 오래전부터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응원하고 후원해 주셨던 前 한민내장(주) • 제성내장(주) 총괄 회장이신 이은경이사님께서 올해에도 신사옥 건축기금마련을 위해 300,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9. 박수영, 박수혜, 민경애 후원가족 후원금 전달

㈜브레인컨설팅 박수영 대표님과 어머님이신 민경애 후원자님, 동생이신 박수혜 후원자님께서 소아암환자의 가정의 평안과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12,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20. 진은정,권용식 후원자 치료비 후원금 전달식

11/27(수)에는 2021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도 안성에서 착한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진은정, 권용식 부부께서 소아암환자의 치료비지원을 위해 30,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21. 이싹회 후원금 전달식

11/28(목)에는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진행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이싹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9/6(금)에 진행된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인 81,629,580원에 대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2. 연세미래지도자클럽 후원금 전달식

12/9(월)에는 연세미래지도자클럽에서 소아암환자 및 가족의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0,000원의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3. 한국오노약품공업 주식회사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식

12/11(수)에는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구입한 후원물품 및 편지의 전달식을 진행하였고, 후원금 5,000,000원의 후원금에 대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4. 도런도런 송년잔치 후원물품 전달식

12/18(수)에는 5/1(목)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을 보내주었던 도런도런에서 한해 동안 소아암치료를 위해 힘들었을 소아암환자를 위한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송년잔치때 후원해 주셨습니다.



25. 시어도어 루스벨트 한국지회 테디베어인형 후원물품 전달식

12/18(수)에는 송년잔치를 맞아 해피빈재단을 통해 연계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한국지회에서 테디베어 인형 296개와 테디베어 키링 240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26. 메르베르 에센스 로션 후원물품 전달식

12/18(수)에는 테디베어 인형을 후원해준 시어도어 루스벨트 한국지회를 통해 연계된 메르베르에서 소아암환자를 위한 에센스 로션 24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27. 양재동 천사유치원 2024 천사들의 나눔 후원금 전달식 진행

12/19(목)에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천사유치원에서 재원중인 유치원생들과 선생님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4,647,260원의 후원금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유치원 아이들의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8. 박우람후원자 소아암환자 치료비지원 후원금 전달

12/24(월)에는 우람보컬스튜디오의 박우람대표님께서 소아청소년암 환자를 돕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한해동안 모금을 진행한 소중한 후원금 1,3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29. 더메리프로젝트 크리스마스 맞이 후원물품 전달

12/25(수)에는 2018년부터 매년 겨울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생필품을 후원해 주시는 더메리프로젝트에서 휴지,샴푸,비누,핸드크림 등의 생필품을 한빛하우스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30. 김성한 후원자 쌀 20kg 10포대 후원

12/26(목)에는 2022년 이후 매년마다 그해 수확한 햇쌀 중 가장 맛있는 쌀을 후원해 주시는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김성한 대표님께서 20kg 쌀 10포대를 후원해주셨습니다.



31. EY한영 후원금 전달

12/30(월)에는 EY한영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함께 기금을 마련한 후원금 15,000,000원을 소아암환자 및 가족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전달해 주셨습니다.

1. 2024년 결산서

(2024.01.01~2024.12.31)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후원금 수입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1) 정기후원		1) 인건비	
1-1) CMS후원	73,232,085	1-1) 급여 및 수당	43,500,400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31,005,000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9,187,447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5,820,000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지방세	16,438,390
2-1) 정기후원 소계	110,057,085	1-1) 인건비 소계	69,126,237
2) 특별후원		2) 운영비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50,931,970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2,358,500
2-2) 해피빈	63,807,300	2-2) 물품구입비	2,164,902
2-2) 특별후원 소계	114,739,270	2-3) 여비교통비	639,400
3) 지정후원		2-4) 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택배,주차 등)	1,837,840
3-1) 치료비지원	153,839,580	2-5) 예비비	0
3-2) 진료상담 프로젝트	90,000,000	2-6) 기타 운영비	5,740,650
3-3) 미술치료	900,000	1-2) 운영비 소계	12,741,292
3-4) 건축발전	300,000,000	3) 홍보	8,467,222
2-3) 지정후원 소계	544,739,580	4) 후원 개발 및 관리	6,281,905
4) 비지정후원(개인)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96,616,656
4-1) 비지정 개인후원	80,193,715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쉼터)	
4-2) 비지정 단체후원(기업,재단)	19,641,508	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2-4) 비지정후원(개인) 소계	99,835,223	1-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23,237,067
후원금 소계	869,371,158	1-2) 정수기렌탈요금	836,400
2. 자산 매도금액		1-3) 가스요금	5,432,510
1) 금융자산매도	0	1-4) 방역요금	1,423,400
2) 유형자산매도	0	1-5) 전기요금	5,349,450
금융자산 매도 소계	0	1-6) 수도요금	1,647,270
3. 잡수입		1-7) 인터넷 및 TV요금	1,502,870
1) 이자수입	16,299,439	1-8) 시설개보수비	11,839,460
2) 기타잡수입	573,914	1-9) 재산세	1,883,047
잡수입 소계	16,873,353	2-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소계	53,151,474
세입합계	886,244,511	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2-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5,476,020
		2-2) 정수기렌탈요금	561,600
		2-3) 가스요금	2,800,970
		2-4) 방역요금	1,317,000
		2-5) 전기요금	2,753,540
		2-6) 수도요금	1,353,690
		2-7) 인터넷 및 TV요금	914,651
		2-8) 시설개보수비	10,151,770
		2-9) 재산세	2,579,975
		2-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소계	27,909,216
		3) 현대벤처빌 운영	
		3-1) 관리비	3,102,740
		3-2)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299,270
		3-3) 가스요금	513,190
		3-4) 인터넷 및 TV요금	448,680
		3-5) 시설개보수 및 관리비	0
		3-6) 재산세(부동산세 등)	525,728
		2-3) 현대벤처빌 소계	4,889,608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85,950,298
		3.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50,558,920
		4. 자산구입금액	
		1) 금융자산매입	600,000,000
		2) 유형자산매입	0
		자산구입금액 소계	600,000,000
		5.소아암환자지원사업	
		1) 소아암가족지원사업	86,964,781
		2) 멘토링프로그램(기린아&꿈드림)	9,986,660
		3)미술치료프로그램	4,859,848
		소아암환자지원사업 소계	101,811,289
		6. 잡지출	450,000
		잡지출 소계	450,000
		세출합계	935,387,163
월(연) 자금수지(세입-세출)		-49,142,652	
전월(년)이월금		479,839,722	
차월(년)이월금		430,697,070	

2. 후원회원

(2024년 1월~12월)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박정순, 배정임, 이선희, 이희경, 조미영,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미, 김경민, 김두진, 김병천, 김선정, 김소라, 김영숙, 김유민, 김은경, 김재훈, 김종수, 김지선, 김진소, 김진아, 김춘희, 김현이, 김현정, 김혜연엄마, 김희진, 나수연, 도현순, 모명환, 모민희, 문숙희, 박미나, 박선정, 박영란, 박은선, 박은재, 박정선, 박태선, 박현준,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백일영, 서진근, 석미영, 성정숙, 손유진, 송기원, 신재영, 심소정, 안상민, 안혜주, 양재승, 오미영,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윤성현, 이감우(이종엽), 이광환, 이규현, 이다영, 이승환, 이영혁, 이은우(이종엽), 이은정, 이인숙, 이주현, 인수진, 장수연, 정규성, 정미혜, 정서윤, 정행훈, 조미영, 조형희, 지승연, 최병숙, 최상민, 허수정, 현승준, 황인희, 황정원				
2만원	강유미, 권대용, 권민수, 권순호, 김규광, 김나원, 김라임, 김민정, 김선화, 김수헌, 김영자, 김예지나, 김왕배, 김재실, 김종옥, 김지영, 김진희, 김현숙,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유정, 남윤천, 노유원, 민주원, 박은령,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배석진, 서정혁, 석윤희, 신경민, 신현주, 양혜란, 유경아, 유기옥, 윤이송, 윤정애, 은종선, 이동구, 이명순, 이민영, 이배환, 이수정, 이영조, 이유미, 이윤선, 이지순, 이현빈, 이혜인, 임규찬, 임재순, 임지선, 장미경, 장진희, 정인호, 조달님, 진정문, 최승관, 최식환, 최영애, 하미경, 한수영, 한윤혁, 한재원, 한정화, 한혜선, 현도윤, 홍관욱, 홍영숙, 황지율				
3만원	강진희, 고경민, 고애란, 국아령, 김건이, 김광재(최은희), 김수연, 김예준(김명희), 김주희, 김지윤, 김채운, 김현진, 김홍익, 박건희, 박승원, 박유선, 서명석, 신동성, 신형주, 심현정, 양기정(한승혁), 유재덕, 이승순, 이은미, 이정원, 이진희, 이채윤, 이철주, 장성필, 장현진, 정동화, 정혜순, 조희경, 주식회사 업짐, 주형준, 주혜연, 최병철, 최수영, 한상원, 홍순명				
4만원	김수경2, 정윤한				
5만원	(주)용천신일신성가스, 강창무, 권민지, 김도연, 김은아, 김지혜, 김형기(김예준), 문선미, 박민지, 박상민(박세진), 서현우, 송민정, 신윤정, 신희진, 이승현, 이효선				
10만원	강명선, 고복희, 권승연, 권용식(착한푸드), 김선희, 김영준, 김윤아, 안도형, 이승연, 이지은, 이지현, 장준영, 한승민				
20만원	김미영, 이배영, 이지은, 정만희	26만원	배길선	40만원	(재)청아장학재단
50만원	배명자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5,000	김혜림
20,000	강나경, 강병화, 고정현, 곽지민, 김도윤, 김미숙, 김성효, 김시우, 김예준, 김원형(김효준 부), 김유정, 김진혁, 김현정, 김효정, 마영주, 문경균, 문지혁, 박세연, 박정호, 박준희, 박진영, 박현석, 반종현, 배서윤, 송서은, 송연우, 송영진, 신선아, 양무길, 양지수, 오승환, 오예성, 유세헌, 윤정선, 전준영, 이상현, 이솔, 이수정, 임효건, 장지호, 장현지, 전우선, 정가온, 정다희, 정봉섭, 정수경(이진옥), 정유나, 정재엽, 정재희, 정제나, 정지아, 제예진, 최준혁, 한미애, 허은서, 현승윤, 홍다남, 황아온
23,500	김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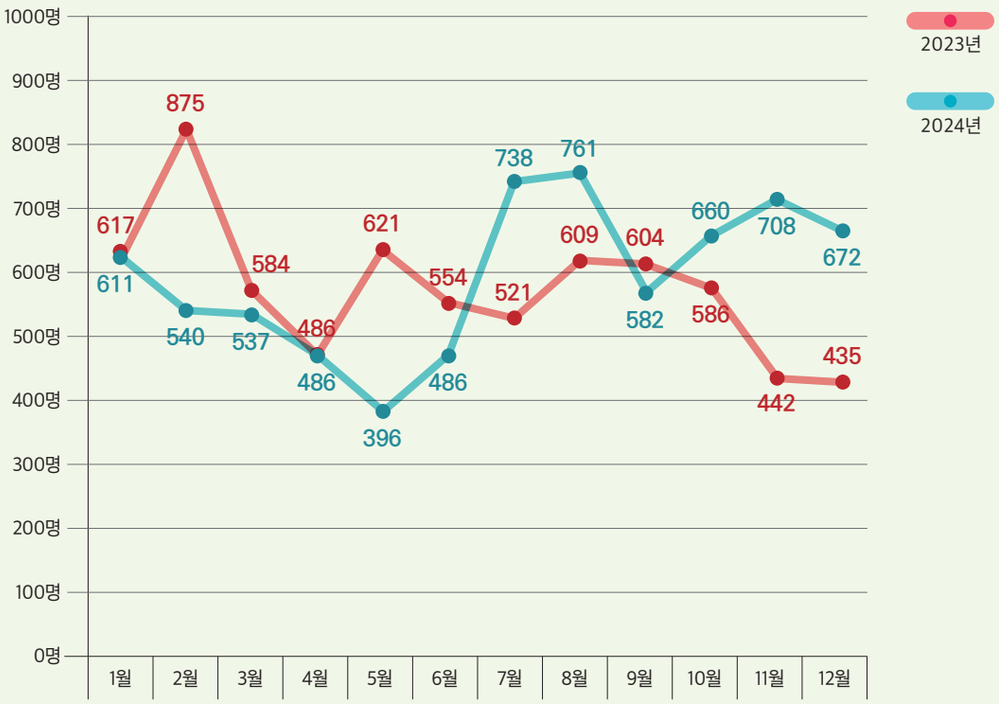
금액	후원자명
30,000	김수연, 오은찬, 한승혁, 황옥순, 윤은솔
50,000	남윤성, 백지현, 양지현맘임순아, 이혜영, 정예찬, 황지율, 황한별
60,000	박정숙
70,000	이은찬, 조하윤
80,000	이경민2
100,000	강예준, 김주황, 백지현, 서복례, 안연서, 오승환, 이다근, 이영빈, 이영준, 이유담, 이조아(다근), 이호준, 장시온, 한태범
120,000	박홍이, 김류연, 문지혁, 신혜경
170,000	김지민
200,000	배연정, 변병숙
220,000	김시언-삼송진참
420,000	이승환
500,000	송민선 박유진 모, 임선우

금액	후원자명
520,000	김지안(라파엘교육), 박세연
540,000	서한별
600,000	김준회, 이강준
760,140	정현민
1,000,000	박수영, 박수혜, 박예진, 박현숙, 유철주, 한수현
1,020,000	강민주, 김경흠
2,000,000	김현이, 장준영
2,050,000	이규현
2,300,000	환경기술사회
3,000,000	김윤아(탄츠플레이)
3,472,110	천사유치원
5,000,000	천사
5,259,000	이싹회
10,000,000	민경애
15,000,000	EY한영
20,000,000	이배영
300,000,000	이은경

3.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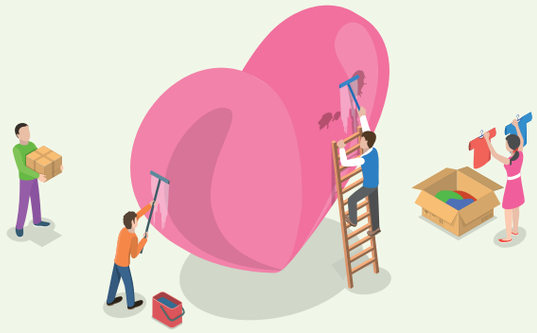
1. 2024년 이용현황 (1월~12월)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① 이용현황표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환자	259	273	247	213	253	245	227	251	250	241	178	183	2,820
보호자	352	602	337	273	368	309	294	358	354	345	264	252	4,108
합계	611	875	584	486	621	554	521	609	604	586	442	435	6,928





2. 2024년 후원물품내역

1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휴지,레고,휴지통,엘가닉 등), 궁동복지관(라면 6box, 수제 천사인형 50개), 신협(한돈제육, 수산물 선물세트, 전골냄비 등 22종), 만남과동행(과자류 18box), 이혁(무우 시래기 4box), 김옥자(김4톳)
2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서랍장,다용도상,키친타올,압력밥솥,냄비,휴지 등), 이효선(참기름1명, 김1톳, 멸치1box), 대흥설비(한상가득 선물세트 50box)
3월	소아암재단(쌀40kg), 본아이에프(키즈죽 400개)
4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메디록스, 휴지 등/물티슈 6box/캔샴푸,캔바디클렌저 등), 한국환경기술사회(과자류 45box)
5월	소아암재단(쌀40kg/이마트물품-올샴푸,키친타올,엘가닉 샴푸 등), 도런도런(어린이날 선물꾸러미 60개), 메가커피(쿠키 60개, 잼 6개), 만남과동행(마스크 1500장, 생수 500개), 메이크어위시(캔서코치 6box), 이혁(곰취3box)
6월	소아암재단(쌀40kg), 이효선(양파, 마늘), ㈜에크엔씨(일반 마스크 6000장)
7월	소아암재단(쌀40kg/메디록스, 비니모자 등), ㈜은하수미디어(색종이접기 책 및 색종이 60세트), 박수영(보냉백 등 923종), 본아이에프(아기 뻥튀기 50개)
8월	소아암재단(쌀40kg, 이마트 물품후원), 친우엠테크(이노테이프 96개), 연대어린이봉사단(DIY 의료키트 25개)
9월	소아암재단(쌀40kg), 신협(칼세트 등 26개), 대흥설비(한우갈비탕 50box), 엘가닉(캔비누 등 총 39개)
10월	소아암재단(쌀40kg), 엘가닉(클렌저 등 57개)
11월	소아암재단(쌀40kg), 친우엠테크(이노테이프 54개), 엘가닉(치약 등 387개), 이효선(새우젓 7kg), 김혜연(쌀 40kg)
12월	소아암재단(쌀40kg/메디록스 등 164개), 엘가닉(캔비누 등 46개), 이지은(장갑 7개), 한국환경기술사회(캐리어 12개, 과자 7box), 더메리프로젝트(휴지 등 생필품), 김성한후원자(쌀 20kg 10포대)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1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절취선

굿모닝 썬샤인 프렌즈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 개인 ☐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 100,000원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기타( )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 5일 ☐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요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Home sweet home”



<2024 제4회 그림페스티벌 성인부(완치자)부문 최고상 수상작>

치료를 받았던 시기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온 저를 반겨주고 웃는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가족들의 노력을 약간의 각색을 하여 만든 11컷의 만화입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함께 치료가 끝나면 할 일들을 이야기 하며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종 깜짝 선물로 저를 웃게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드라이브나 근처를 산책하며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하던 봄에 집 근처 산책길을 걸었던 추억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